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예배

남이 잘되어야 나도 잘 됩니다.

2026.3.8.

사도행전 11:25~30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일 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오늘은 '남이 잘되어야 나도 잘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덧 봄기운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이 봄날처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머무는 안디옥 교회

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스테반의 순교 이후,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고, 다른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안디옥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죠. 현재는 둘 다 튀르키예 땅인데요.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은 세 번째 거대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만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엄청난 도시였죠. 현재 분당의 인구수가 50만명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안디옥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그 곳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21절에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한 것처럼 그곳에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품고 지도하기 위해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 아침, 묵상한 바처럼, 이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파송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오히려 이를 경계하고 유대인들의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막기보다는 권면하고 격려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의 지도 아래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본문 24절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우러러보았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내가 목회를 잘해서 부흥했구나." "나의 리더십이 탁월하구나." 자신이 이런 성과로 여기며 1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1인자의 자리를 내어준 위대한 동역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25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기독교 역사를 뒤바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부흥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디옥을 떠나 다소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다소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사울, 그러니까 훗날 바울로 불리는 이의 고향이자 그가 지금 칩거하고 있었던 곳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온전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살인자라는 꼬리표 때문이었죠. 결국 바울은 쫓기듯 고향 다소로 내려가, 오랜시간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자신보다 바울의 신학적 깊이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꺼이 바울을 데려와 공동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말이 있습니다. 1인자인 바나바가, 잊혀진 야인 바울을 데려와 무대에 세운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1인자 자리를 바울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동역이죠.

우리는 지난 아침 묵상에서 바나바를 통해 '착한 사람'의 정의를 새롭게 묵상한 바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성품이 순하고, 남과 다투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향해,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거세게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흐른다면, 자신이 굳이 1인자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이 잘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높아짐의 초석이 되는 진짜 겸손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은 그저 비굴하게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라며 뒤로 숨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성경적 겸손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내 자리를 기꺼이 비워드리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12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을 낮추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유일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높아짐의 초석입니다. 내가 나를 억지로 높이려 하면 세상은 나를 끌어내립시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위해 나를 낮추면, 주님이 나를 들어 올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십니다. 바나바가 자신을 낮추고 바울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자요 동역자로 영원히 높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의 위대한 동역의 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 이웃이 더 빛나도록 조명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를 1년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26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지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우

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들, 즉 이웃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미치광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는 철저한 악육강식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사는 제로섬(Zero-Sum)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상합니다. 1인자가 2인자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의 것을 나눕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물건을 통용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했던 것처럼, 안디옥의 이웃들도 부러움과 경이로움의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분명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붙여준 영광스러운 훈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표지는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위해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돕는 것입니다.

※남이 잘되어야 나도 잘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성품은 곧바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본문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극도의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1:29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안디옥 교회는 아직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들도 흉년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코가 석 자입니다. "우리 살기도 바쁜데 남을 어떻게 도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이웃을 도운 것입니다. 우리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주제에, 임대료 낼 돈도 없어서 무상으로 복지관 빌려서 예배하는 주제에, 일년동안 모은 헌금을 농촌교회에 주고오는 교회였습니다. 변변한 예배처소 하나 없을 때 이웃을 돕겠다며 다림교육 사무실을 얻고 이웃을 위해 일했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고 다 잘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이 잘되어야, 내가 잘된다"는 진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모교회입니다. 복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말라 죽으면 가지도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 기독교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들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디옥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이웃이 잘되어야 내가 잘 됩니다. 내 가족이 잘되어야 내가 잘 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이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막 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 혼자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그들이 빛나야 나도 빛납니다. 그들이 잘되는 것이 곧 내가 잘되는 일입니다.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되는 일이 바로 내가 잘되는 일의 첫걸음입니다. 내 주위의 이웃이 건강하고 부유해야, 내 삶도 건강하고 윤택해집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누며 그들을 섬길 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어리석음, 사촌이 땅을 사면?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영혼에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속담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말을 '가까운 사람이 잘되면 질투가 나고 속이 꼬인다'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우리 민족의 고약한 심보를 탓할 때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의 진짜 유래를 아십니까? 본래 이 말은 그렇게 웅졸하고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거름이었습니까? 바로 인분 사람의 배설물이었습니다. 땅을 샀으니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질 좋은 거름이 듬뿍 필요합니다. 사촌이 어렵게 땅을 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돈이 없으니 거름이라도 보태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배라도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사촌의 새 땅에 거름이라도 듬뿍 퍼다 줄 텐데!"라는 극진한 이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라도 너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는, 눈물겨운 사랑과 축복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면서, 이 아름다운 축복의 속담이 시기와 질투의 대명사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담의 원래 의미를 신앙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든 더 잘되게 하기 위해 내가 배가 아파서라도 거름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이웃이 잘되면 내 일처럼 기뻐하세

요. 남의 일이 잘되면 박수를 치며 응원해야 합니다. 공동체 가족들이, 그들의 자녀가 잘되면, 내 일처럼 함께 울고 웃으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에요.

※사회과학이 증명하는 이타주의의 기적

남이 잘되기를 바라고 돕는 것이 결국 나를 잘되게 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종교적인 덕담이 아닙니다. 심리학에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강력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때 느끼는 극도의 정신적 포만감과 행복감이 헬퍼스 하이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 자체가 나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영양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이를 '비영합 게임(Non-Zero-Sum Game)'이라고 부릅니다. 제로섬 게임은 내가 1을 얻으려면 남의 1을 빼앗아야 하는 피 튀기는 경쟁입니다. 하지만 비영합 게임은 나와 남이 협력하여 함께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네가 잘되어야 나도 잘되는 상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이 상생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켈러(James Kel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 하나로 다른 촛불에 불을 옮겨 붙인다고 해서, 처음 촛불의 빛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빛을 나누어 남을 밝혀준다고 해서 내 빛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 안은 두 배로 밝아집니다. 남을 칭찬한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내 성공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과 온기가 나를 더욱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혼자 잘되는 길은 없습니다. 벼랑 끝에서 나 혼자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면 결국 함께 떨어집니다. 우리는 같이 잘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잘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잘되어야 아내가 잘되고, 자녀가 잘되어야 부모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의 삶이 든든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잘되게 하고 나도 잘되는 가장 강력하고 실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남의 영혼에 거름을 주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성경 옴기를 보십시오. 옴이 그 극심한 고난과 질병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옴기 42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옴기 42:10 옴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옴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옴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나를 조롱하고 정죄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배가 아파도 단단히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옴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며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옴의 곤경을 끝내

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친구를 향한 기도가 곧 나를 살리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초석은 이웃을 향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내 옆에 앉은 성도님을 바라보며 속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잘되어야 내가 잘됩니다.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1인자입니다. 당신이 잘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나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겸손을 실천할 때, 안디옥 교회처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구제의 손길을 펼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 "이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착한 마음, 이웃의 땅에 기꺼이 거름을 쏟아붓는 축복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옹에게 내리셨던 갑절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